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청년창업농 대상 농지은행 사업설명회 개최

[이천구]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



[내외일보]이천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는 6월 24일, 25년 선정 청년농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된 청년창업농과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청년 창업농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설명 및 홍보를 통해, 청년농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 전체를 안내 하는 한편, 청년창업농이 재배하고자 하는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 하여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김포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등 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영농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임대수탁 사업, 공공임대형 매입비축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농 농가에 1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호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은 청년창업농에게 영농 초기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장기 적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 활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을 통해 안 내받을 수 있다.